

<초연 (2016)> <Première (2016)>

출연 최승윤 드라마트루그 송주호 음악 Sergei Prokofiev

1938년에 초연된 발레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중 줄리엣 슬로를 2016년에 다시 초연하기로 한다.

오늘날의 초연을 위하여 기억하기와 되감기(reverse/rewind)라는 전략과 함께 역사속에 완결된 작품을 초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한다. 하지만 이 기억하기의 과정들은 현재의 몸과 충돌하며 오히려 과거와의 간극을 더 벌여놓을 뿐이며 결코 처음으로 되감길 수 없는 지경이 된다. 결국 이는 역사속에 단 하나 뿐인 다른 공연으로 초연이 되고 만다.

Q. 최승윤씨의 이번 작품 <초연>의 창작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

A. 사실 첫 동기는 조금 오그라 들 수 있는데요... 지난 봄에 제가 이래저래 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들을 연달아 겪었던 "시기에 모든것을 되돌리고 싶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모든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했었어요. 그러면서 연습실에서 스케치 차원으로 녹화를 해둔 것이 바로 이번 <초연>의 기본 구조 였습니다. 제가 몇 가지 동작을 추고 난 뒤 그 동작을 직접 뒤로 되감아 다시 수행하는 것과, 화면 자체를 되감는 편집을 한 영상을 한 프레임에 넣었던 스케치 영상이예요. 제가 직접 되감김을 수행하는 영상과 화면 자체가 되감기게 편집된 영상에서 오차가 생겨요. 거기서 부터 출발한 작업 이에요. 그리고 공연자체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아마 무의식 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묻어져 나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배우로 출연한 영상작업을 하고 적어 놓은 노트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 동작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끔 컴퓨터상의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 팝업창을 종종 본다. 한 번이라도 이 동작을 수행한다면 이제는 더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말. command+z(실행취소)키에 익숙해진 나로서 당연히 내게 필요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팝업창이 뜨면 조금 당황하며 다시 한 번 더 괜찮겠지?확인하며 동작을 실행한다.

"다시 한번 갈까요" - 어제 촬영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인듯. 이렇게 잘빠지 것들만 모아서 매끈하게 편집하면 예쁘지않을까 어디 있을까. 그제야 '공연'이라는 게 어떤것이였는 어렵듯이 느껴진다. 나는 다시 한 번 갈수도 없고, 이미 벌어져버린 현장을 취소할 수도 없다.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반복될 수 없이 나의 다음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다. 울통불통하다. 이것은 마치 지금 내가 살아가고있는 OO 혹은 O과 같다(글로 쓰지면 유치할 것 같아 동그라미로 대신한다). 요즘 들어 부쩍 지난날의 본인을 기억하고 후회하며 아쉬워하다 다시 다짐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만약 나의 모든 과거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이라고 공상떨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 하여간, 그리하여 나는 공연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공연하기를 좋아한다. 고백이다.

09/21. 2015

뭐 이런 식의 단상들이 모여 생각의 결을 만들고 작업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대체로 작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작업으로 발전된 컨셉들은 기억도 안날 언젠가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끄적이고 있던 잡생각들에서부터 이더라구요.

Q. 최승윤씨의 <초연> 작업에서 클래식 발레의 레퍼토리를 가져오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만 말씀 드리자면, 발레는 무용이라고 말할때 '일반 관객'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이지 않나 싶어요. 그만큼 무용이라는 매체 안에서 발레라는 장르는 그것 자체로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죠, 역사적으로나 영향력로나. 사실 저의 배경은 발레라고 말해줄 수 있겠는데요, 만 5세때부터 완전히 전통적인 방식의 클래식발레교육을 성인이 될때 까지 받아왔습니다. 이 시절의 저는 물론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꿈인 적도 있구요. 이러한 배경은 현재 안무를 하는 저에게 있어 일종의 콤플렉스로 작용했었어요. 지금 제가 존경하고 작업적인 동질감을 느끼는 안무가들 중에는 이런 식의 '보수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주로 발레로 훈육된 저의 신체를, 그리고 발레로 표상되는 모든 관습들을 부정하는 것이 제가 안무가로서 활동하는 데 가장 첫 번째로 성취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웃음). 하지만 이미 몸으로 체득된 이 것 들 을 저는 절대로 버릴 수 없더라구요. 마치 한 번 자전거타기를 배운사람이 모르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듯이요. 그러나 저는 평생 이 견고한 성의 구조를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식으로 이 성곽에서 빗겨난 후미진 곳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포켓츄, but I will archive you> 작품의 일부도 나왔던 것 같구요, 무용-정확히는 발레를 추면서 발생했던 질문들을 현재에도 유효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 이번 작품 <초연>에서는 클래식 발레라는 마치 손에 잡힐 듯이 너무나도 구상적인 춤이 되어버린 발레를 흐물흐물한 상태로 풀어내버리는 과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래서 이미 끝나 버린 역사속의 무용을 다시 현재진행형의 춤으로-컨템포러리 댄스라고 하죠-쓰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제가 학창시절 흠모해오던 발레리노분이 안무한 작품을 본적이 있는데, 발레 죽이기와 현대화 라는 이런식의 타이틀을 걸고하는 공연이었는데 막상 공연을 보러가니 의상이나 음악만 바뀌었지 동작은 여전히 너무 발레인거죠. 저는 그때 했던 생각이 발레가 얼마나 징하고 강력한 귀신같은 건데 그런 숨방망이로 이게 죽겠나? 였어요. 여튼 이건 여담이고요, 바로 전 질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초연>의 창작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움직임 이던지 이 기억하기와 현재의 틈을 벌릴 수 있는 것이라면 상관 없겠다 싶었는데 이왕이면 발레라는 아직도 너무나도 파워 막강하고 구체적인 망령님을 모셔와 정말로 저승으로 보내거나(웃음) 그게 안된다면 다른 감투를 씌워주고 싶다는 생각으로까지 확장된 것 같아요. 아, 덧붙여서 이번에 인용된 발레작품은 <로미오와 줄리엣> 중 줄리엣이 로미오를 처음 만났을 때 추는 솔로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프로코피예프의 음악이 정말이지 아름답습니다...ππ 제가 조금 각색하긴 했지만 American Ballet Theater의 Alessandra Ferri가 추는 솔로를 유튜브보고 배웠습니다.

Q. <초연> 작업에서 Rewind 혹은 Reverse 라는 형식/구조를 세우셨는데요 이러한 형식은 위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발레를 해체시키기 위한 강력한 구조로 이해하면 될까요? 왜 꼭 되감기 라는 형식이어야만 했나요?

A. 발레라는 장르보다 더 크게 무용이라는 매체로 확대해서 본다면 이 작업은 이미 사라져버린 춤에 대한 심폐소생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과거의 춤을 지금 다시 재현 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이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하구요, 공연을 보셨다면 이해 하셨겠지만 이 심폐소생의 과정은 제가 과거의 춤들을 다시 가져와 재생방향으로 재연할 때가 아니라 기억에 의존해 그 역방향으로 수행할 때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춤은 소실점 끝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생산과 동시에 소멸한다고들 말하죠. 그리하여 춤의 진정한 존재론은 무의식 혹은 기억 속, 바로 사라진 그곳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 작업 안에서 저는 바로 직전에 추어본 순방향의 무용을 기억해 내고, 그 기억에 의존해 다시 거꾸로 더듬더듬 짚어 가는 과정을 거치며 사라졌기에 비로소 확고히 존재(being)하고 있는 춤을 불러와 그것을 현전(being-present)으로 바꾸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더듬는 행위는 결코 처음의 재연과 같아 질 수 없어지고, 하지만 이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춤의 탄생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작업의 구조는 리벌스(reverse)인듯 하지만 사실은 리벌쓰(rebirth) 인거죠. 비디오는 되감기를 하면 정말로 모든 장면은 되돌려져 맨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공연이 되감기면 과거의 장면들은 상기되지만 현재와 충돌하며 전혀 새로운/다른 처음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기억하기-되돌리기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구조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